

행자부, 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터 개관

행정 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역예산을 집행하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한국지방재정회관에서 「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터」를 개설, 지난 1월 22일부터 민원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상담을 소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체계적·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개설 됐으며 △상담 요청 → 1차상담서비스 → 진행상황 파악 → 미진한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 → 수범사례 전파의 순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터」는 앞으로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신속하고 품질 높은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 고객만족을 확대하고 제도적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를 비롯한 건설단체 임원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계약담당 사무관, 시·도 교육청 계약담당 사무관, 행자부 산하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상담전화: 02)3274-2086, 02)2100-4117~8, 02)2100-4120



A letter – 편지

Wife: “Can I see that letter you just read? It was in female handwriting and it turned you quite pale.”

Husband: “Certainly, dear, It’s from your dressmaker.”

아내: “당신이 방금 읽은 그 편지 어디 좀 봅시다. 여자 필적이던데 그걸 보고는 그만 얼굴이 싹 달라지네요.”

남편: “봐요 봐. 당신 의상점에서 온 거요.”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